

# 아침햇살

2016  
FALL

한미특수교육센터 안내&소식 2

로사 장 칼럼 KASEC 공나무들 3

발달정보 유아 자폐 검사표(M-CHAT™) 4-5

장애정보 TIGER Training 6-7

교육정보 I 성인자폐 진단 방법 8-9

프로그램 Summer Music Camp 10-11

행사후기 Love Share Run&Walk 12-13

교육정보 II 발달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방법 14-15

밝은 마음 상담실 힐링타임을 마치고 16-17

LA Children's Health Screening Fair 18

프로그램 안내 19

이달의 후원자 20

#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식

1. 지난 7월동안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Summer Program을 진행하였습니다.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Summer music camp를 열어 아이들이 여러 음악&미술 활동들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자기표현력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위한 힐링타임을 열어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해준 신혜지양과 Randy Kim군에게 감사드립니다.
2. 9월 17일 LA에서 열린 중앙일보, Happy Village에서 주최한 Love Share Run & Walk 행사에 저희 센터의 발달장애 학생들과 많은 봉사자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 9월 23일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와 함께하는 IEP meeting & TIGER Training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4. 9월 28일부터 Parenting Seminar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2시까지 6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p.17를 참고해주세요.
5. 10월 8일 작년에 이어 LA Health Screening Fair(어린이 발달 무료검사)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p.18에 있습니다.
6. 10월30일 KAM Chorale 음악회가 열립니다. 저희 한미특수교육센터를 위한 Fundraising이 함께 진행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New life community church (18800 Norwalk Blvd, Artesia, CA 90701)

시간: October 30. 2016, 7pm

## 한미특수교육센터 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 특수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자선기관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 장애인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특수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언어치료, 특수음악프로그램, 개별 특수교육, 놀이치료)
2.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3. 학교관련문제 및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아스퍼거증후군 상담
4.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및 Parenting세미나와 워크샵
5. 전문가를 위한 최신 특수교육 및 치료정보 워크샵과 심포지움 주최
6. 특수학교와 장애관련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 제공
7. 특수교육 관련 법률 Referral Service와 사회복지 정보 안내
8. 매스킹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활동과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행사 주최
9. 장애 및 치료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무료 기간제 "아침햇살" 발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나 Special Education Service 등에 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의: (562) 926 -2040



## KASEC 꿈나무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해진 날씨가 가을임을 알려줍니다. 여름방학 동안 쉬었던 가을 학기 통합 농구교실이 지난 주 금요일 시작 되었습니다. 시작 시간인 4시가 채 되기도 전, 농구장 문을 열어 제치며 달려 들어오는 아이들... 옷본 사이에 키들이 한뼘에서 두뼘까지도 자란 듯 합니다. 아마도 여름날의 햇볕속에서 나름의 자유를 누리며 지낸 지난 2달이 아이들을 많이 자라게 했나봅니다.

여름내내 '농구 언제해요', '농구 좋아요', 하며 나를 볼 때마다 쫓아다니며 이야기하던 B도, 시크하게 hi five로 인사하는 J도, 공을 넣고 달려와 상기된 표정으로 hi five를 하는 S도 모두 모두 신났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팀 유니폼도 주문했습니다. 유니폼을 입혀 놓으면 모두 NBA 선수 같겠지요? 이런 상상을 하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다시 기운이 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농구를 비롯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하려고 여기서 기 후원 요청하려 다니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좌절들이 아이들의 좋아하는 모습과 웃음에 한방에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과 주말에 LA 코리아타운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사랑나누기 5K'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는 넓은 뿔서길을 마음껏 달려 나가는 아이들. 아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울만한 고기처럼 좋아하는 아이들. 마지막 finish라인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환호에 부듯한 표정을 지으면 뛰어 들어오는 아이들.

아이들이 행여 다른 길로 갈까, 행여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어쩌나..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아이들의 옆과 뒤를 따라 갔습니다. 그 덕분에 다행히 한 건의 사고도,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무사히 완주하였고 즐겁게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마음껏 뛰어 났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같한다는 박수와 환호를 들어볼 수 있나요.

칭찬과 환호에 즐거워하며 낯선 사람들과 손흔들며 손을 마주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스스로 자기를 가두었다는 뜻인 "자폐"라는 엄청난 이름을 붙여놓았나요.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고, 세상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있고, 우사인 볼트, 마이클 펠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단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달랐고, 단지 남들 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뿔서길을 비추던 가을 아침 햇살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은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열매들처럼 그렇게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 유아 자폐 검사표 (M-CHAT™)



아이에게 자폐가 의심되거나 아이의 발달이 정상 범주에 있지 않아 고민이 되시나요?

유아 자폐 검사표 (M-CHAT™)는 16개월에서30개월 사이인 유아를 대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생후18개월에서 24개월된 모든 유아가 자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표는 부모님이 간단한 질문들에 응답하는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자가진단 질문지입니다. 자폐는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M-CHAT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자폐가 의심된다면 부모님 혼자서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 M-CHAT™

자녀에 대한 다음의 질문들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에 나타난 행동이나 특성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나타나는 경우라면 '아니오'에 표시해 주십시오. 모든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방 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가리키면 아이가 그것을 쳐다보나요? (예, 장난감이나 동물을 가리키면 아이가 그것을 쳐다보나요?)	예	아니오
2. 아이가 혹시 청각장애가 있는지 의심해본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아이가 흉내내기 혹은 가상놀이를 하나요? (예, 빈 컵을 들고 마시는 척 하거나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척 하거나 인형에게 음식을 먹이는 사냥을 하나요?)	예	아니오
4. 아이가 어딘가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예, 가구나 놀이기구 또는 계단)	예	아니오
5. 아이가 자기 는 가까이에서 손가락을 이상하게 움직이는 행동을 하나요? (예, 눈 앞이나 근처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듯한 행동을 하나요?)	예	아니오
6.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나요? (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먹을 거나 장난감을 가리키나요?)	예	아니오
7. 아이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나요? (예,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나 길에 있는 큰 트럭을 가리키나요?)	예	아니오
8.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나요? (예, 다른 아이를 쳐다보거나 미소 짓거나 다가가나요?)	예	아니오

9. 아이가 뒀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오거나 들어 올리나요? (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서 꽃, 인형, 또는 장난감 트럭 등을 보여주나요?)	예	아니오
10.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반응하나요? (예, 아이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쳐다보거나 말이나 웅얼이를 하거나, 또는 하고 있던 것을 멈추나요?)	예	아니오
11. 아이를 보고 웃으면 아이가 따라서 웃나요?	예	아니오
12.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음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나요? (예, 청소기 소리나 큰 음악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우나요?)	예	아니오
13. 아이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나요?	예	아니오
14. 아이한테 말을 하거나 같이 놀거나 옷을 입혀줄 때 엄마와 눈맞춤을 하나요?	예	아니오
15. 아이는 엄마가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하나요? (예, 바이바이, 손뼉치기, 엄마가 내는 우스꽝스런 소리 등을 흉내 내나요?)	예	아니오
16. 엄마가 뒀가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면 아이는 엄마가 무엇을 보는지 돌아보나요?	예	아니오
17.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보도록 하나요? (예, 칭찬을 받고 싶어 엄마를 쳐다보거나, '봐' 또는 '나 봐'라고 하나요?)	예	아니오
18. 아이한테 뒀가를 하려고 말로 지시할 때 아이가 이해하나요? (예,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말로만 '의자에 책 갖다 놓아' 또는 '수건 좀 가져와'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
19. 뒀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아이가 엄마의 반응을 보려고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나요? (예, 아이가 들어보지 않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엄마 얼굴을 쳐다보나요?)	예	아니오
20. 아이가 웅얼이는 활동놀이를 좋아하나요? (예, 그네처럼 흔들려주기 또는 무릎에 올려서 뒀겨주기를 좋아하나요?)	예	아니오

Copyright 2009 Diana Robins, Deborah Fein, & Marianne Barton  
Translation 2014 Gyung Hun Hong, Soo-Jin Kim, & HyeKyung Seung

## M-CHAT™ Scoring

아래 차트는 각 항목에서 자체중의 위험을 나타내는 답입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항목은 중요 항목입니다)  
중요 항목인 2, 7, 9, 13, 14, 15번에서 2개 이상 아래 차트의 답과 동일할 때, 혹은 23개 항목중 어느 것이라도 3개 이상 아래 차트의 답과 동일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니오	2. <b>아니오</b>	3. 아니오	4. 아니오	5. 아니오	6. 아니오
7. <b>아니오</b>	8. 아니오	9. <b>아니오</b>	10. 아니오	11. 예	12. 아니오
13. <b>아니오</b>	14. <b>아니오</b>	15. <b>아니오</b>	16. 아니오	17. 아니오	18. 예
19. 아니오	20. 예	21. 아니오	22. 예	23. 아니오	

한이특수교육센터에서는 0-5세 아이들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해 재의동포재단, Open Bank, 왕글로벳, NTC Wismettac Foundation 후원으로 무료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료발달 선별검사 행사는 10월 8일에 열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p. 18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센터로 연락주세요. 전화 562-926-2040

## TIGER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TIGER 프로그램은 Training Individuals for Grassroots Education Reform의 약자로 특수교육 시스템 안에서 부모님들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Learning Rights Law Center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TIGER 프로그램은 beginning, intermediate, advance의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beginning반부터 시작하셔야 하며 이 코스는 11개월 과정입니다. 수업은 매주 3시간씩 진행됩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특수교육에 대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러가지 종류의 assessment, 누가 assessment를 받는 건지, assessment 결과지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지, IEP 미팅에서 assessment 결과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IEP 관련 서류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아래의 글은 TIGER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셨던 한 부모님의 후기글입니다.

### TIGER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 "Learning Rights Law Center" 사이트를 방문했던 것은 아마 몇 년 전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을 즈음, 자폐를 포함한 발달장애에 관해 책, 보고서, 관련 기관 정보, 동영상 자료까지 열심히 찾으려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와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북마크해 놓았던 발달장애 관련 사이트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진단 받은 후 각종 테라피를 시작했고, 3살이 지나면서 IEP를 열게 되고 프리스쿨을 가게 되면서 학교, 학교, 부모가 하나의 팀이라는 IEP의 기본원칙을 몇번씩이나 들었지만, 실제로 미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정리된 결과는 언제나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부모로서 중요하게 생각되고 학교에 바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팀이라는 학교나 학군 쪽의 의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IEP의 중요성을 어디서나 듣게 되지만 실제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 IEP에는 문제점이 없는건지, 계속 이어질 IEP가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막연하기만 했다.

작년 여름을 지나면서 TIGER training을 통해 IEP를 깊고 자세하게 배우고 부모가 스스로 아이의 보호자이자 변호인이 되는 공부를 모국어인 한국어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왕복 60마일이 넘는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었다.

한달에 한번 3시간 강의 듣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따로 시간내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 않은 속제라도 집에서 집중해서 해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IEP를 진행할 때 트레이닝 과정 중에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프로그램 강의 중에 받았던 속제 중에 학교에 아이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 때 받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스피치 테라피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IEP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가 대책을 요구한 결과,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진행되기로 했고 테라피 시간을 늘려달라는 우리의 요구도 쉽게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있었다. IEP를 시작하고 진행한 지 오랜 시간이 된 것은 아니지만 TIGER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로서 우선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가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받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소프트 하리라는 다짐도 하게 된다. 나와 같은 다른 많은 부모들도 이 유용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 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함께 웃는 친구이자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지가 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Pomona에서 어느 여름 밤에...

2005년부터 최근까지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라틴 혹은 흑인계의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Jennifer Chang 변호사의 도움으로 한인가족들에게도 TIGER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이 되며 많은 한인부모님들이 참가하여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TIGER 프로그램 beginning 코스가 2016 가을에 새롭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Jennifer Chang 변호사 323-931-5270 / Jennifer@jenchanglaw.com 으로 문의 전화해주세요.

## How Do I Get Evaluated as an Adult If I suspect I Have Autism?

# 성인 자폐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By David Beversdorf, Ph.D., neurologist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s  
Thompson Center for Autism and Neurodevelopmental Disabilities



요즘은 자폐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자폐 진단을 간과하는 것도 예전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청소년이나 성인이 진단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사용하는 표준화 자폐 검사는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을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 자폐 진단을 받지 않고 커버린 경우, 보통의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것은 어른들을 위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진단 시험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Conducting an Adult Evaluation

이런 제한적 이유 때문에 성인용 검사는 직접적인 관찰에 많이 의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임상심리사와 내담자간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 상호작용, 의사소통, 감각 문제, 제한된 흥미나 반복적 행동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High-function 자폐를 가진 성인들은 자신의 장애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관찰에 근거한 진단의 정확성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자신의 증상을 숨길 줄 아는 성인이라도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인생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연관된 발달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아기 시절과 관련된 자폐



한 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들어맞는 진단이 초기 발달시기에서 나타난 것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진단 평가척도가 아무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성인들의 어린시절의 발달과정에 대해 분석해 보면 이 척도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어린시절 정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담자보다 연령이 높은 부모 또는 친척들이 대신해 진단 평가척도 문항에 답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담자보다 나이가 많은 가족이 없다면 평가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끔 초기 발달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자폐로 의심되는 사항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았다거나 그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을 겪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일 수 있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보다도 인지장애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Finding Someone Qualified to Evaluate Adults with ASD

현재로서는 전문적으로 자폐가 의심되는 성인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임상 전문가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의 자격을 결정짓는 기준도 불분명 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소아과 전문의, 아동 정신과 의사나 소아 신경과의사들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자폐를 진단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은 살고있는 지역의 자폐 센터에 연락해보기를 추천합니다. Autism Speaks Autism Treatment Network (AS-ATN) 도 그 중 하나로 임상 전문가가 환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자폐 환자들에게 있어 센터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Autism Speaks Is It Autism and If So, What Next? A Guide for Adults (p. 10)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도 성인 자폐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UCI 발달소아과 전문의이신 박현선 박사님께서 소아 자폐진단 및 성인진단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자폐증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성인자폐진단을 원하시면 센터로 연락주세요.

562-926-2040

# Summer Music Camp



올 해 여름은 전 세계가 Hot 한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센터에서는 이번 여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Summer Camp!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을 긴 방학 동안 어떤 캠프를 보낼까 찾아보는 것이 엄마들의 연례 행사입니다. 예년에도 우리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여름 프로그램을 계획했었는데, 주로 치료사들의 치료적 목적이 중심이 된 집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예년과 조금 다르게 치료 세션에 교육적 목적을 좀더 추가한 Summer Camp 를 4 주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 부모님들은 힐링 타임을 통하여 그 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우고, 자녀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지식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Music and Art

Music and Art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음악치료 캠프에서 아이들은 기타 배우기와 음악 안에서 미술 활동을 하며 자기표현과 소근육 발달을 위한 세션에 참여하였습니다. 세션은 매주 1회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자원봉사 학생들이 함께하여 더욱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기타 배우기로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open chord에서 기타 현을 Stroke 하는 기본 주법을

배웠으며 첫째 주는 down stroke, 둘째 주는 up stroke, 셋째 주는 치료사의 지시에 노래 중간에 연주하기, 넷째 주는 본인의 순서에 down and up stroke를 기본 8 beat 로 연주하며 노래하기를 하였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전 곡을 연주하는 학생도 있었고, 부분만 연주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down beat만 완성한 학생도 있었고, up and down 모두 완성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생마다 특성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 성과를 가졌지만 모두들 꾸준히 참여하고 연습하여 각기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들 안에서 활동 할 때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또한 맡은 바 역할을 해 냄으로써 집중력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연습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 까지 함께하고 연주하는 모습에 무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음악 안에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자기표현을 향상 시키고 서로 communication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Under the Sea", 학생들은 여름에 흔히 갈 수 있는 바다와 beach를 생각하며, 바다 속에 사는 동물, beach에서 가족과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고 노래 부르고 이야기 나누며 종이 접기와 craft, 그리고 coloring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종이 접기를 할 때는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바다에 관해 이야기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첫 시간에 배웠던 기타나 혹은 드럼, 작은 리듬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모습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음악적 접근과 art를 접목함으로써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작업을 통해 소근육의 섬세한 움직임을 더 사용하도록 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때로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원 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처음 배우는 기타 주법에 매력을 느꼈고, 쉬지 않고 흥에 취하여 쉬지 않고 노래 부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캠프는 우리 장애 아동들이 많은 여러 종류의 Therapy를 받으며, 때로는 즐거움 보다는 치료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져야 하는 부담감에서 조금은 벗어나, 자유롭게 음악 안에서 연주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 해 갑니다. 이런 바쁜 생활 속에 주어지는 휴가는 우리를 다시 refresh 하게 해주며 에너지를 갖게도 하지요. 이번 Summer Camp 는 우리 아이들이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로 배우는 기타 활동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는 아이들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보람된 여름 방학이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 방학을 우리와 함께 해준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 Love Share Run & Walk

한국에서 가을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가을 소풍과 가을 운동회... 하지만 비가 오면 취소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아서 항상 걱정을 하던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야외 활동에 특별히 날씨를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사랑 나누기 마라톤'에는 날씨가 며칠전부터 계속 걱정이 되었다. 우리 장애 친구들과 함께 마라톤을 해야 하는데 혹시나 날씨가 추워져서 장애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혹시 비라도 와서 미끄러지거나 다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지만 역시 로스앤젤레스의 날씨는 나의 걱정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이른 아침이지만 멀리 옐로스톤 카운티에서 새벽부터 서둘러서 가족들과 일찍 도착한 상군씨와 부모님이 함께 묵으신다고 안오겠다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던 데이빗, 그리고 다이앤은 42.195km의 풀 마라톤은 아니지만 생애 첫 약 3000여명이 출전하는 5K 마라톤에 참여한다는 데 대한 기대 반, 긴장 반의 표정으로 센터의 부스에 와서 모두들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윌셔와 웨스턴의 출발선에서 출발번호를 들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우리 장애 학생들은 이번에 센터 봉사자 학생들 뿐 아니라 '미주 한인 철인3종 경기팀', '연세대학교 Global CEO 과정 3기', 'Espopia 유소년 스포츠 센터' 그리고 '주님의 영광교회 사랑부'에 속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를 응원해주며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였다. 출발 초반에는 상쾌한 가을 바람을 느끼며 평상시에는 차로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오늘은 땀 뚝 뚝 있는 윌셔길을 뚫고 또 뚫었다. 함께 달리던 장애학생들이 나의 페이스보다 더 빨리 뛰기도 하고 센터 선생님들은 1km를 달리지도 못하고 연신 땀을 닦으며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자 에릭과 함께 뛰던 브라이언은 뒤를 돌아보며 빨리 오라는 손짓을 하기도 하였다. 함께 참석하신 봉사자들은 혹시나 장애 학생들이 다치거나 옆에 뛰는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앞에서 달리거나 걷고 있는 다른 주자들의 길을 터주기도 하였고 혹시나 있을 장애물들을 살펴주며 뛰어주셨다.



함께 웃으며 뛰며 걷고 하다보니 어느새 5km의 반환점을 돌아 피니시 라인을 향해 가니 뛰기보다는 주로 걷던 소꿉님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벌써 도착을 해서 우리를 맞이하며 응원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보니 중간에 포기하고 피니시 라인에서 응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모두 한바탕 웃기도 하였다.

5K는 우리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거리이지만 최선을 다해준 학생들이 정말 대단했으며 함께 달리고 걸으며 도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마라톤을 마치게 됨을 감사하였다. 이번 마라톤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한인 교인 사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장애 학생의 가정들도 밖으로 나와서 함께 많은 활동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되었다. 모두가 바라는 희망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며 우리 학생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운동하며 즐길 수 있는 행사들에 더욱 자주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화이팅!!!



## 발달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방법



지난 27일,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는 행동치료 전문가 Jennifer Park, Yoon Park (Program supervisor, Sage Behavior Services) 두분을 모시고 '발달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 관련 봉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 또한 여러 문제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교육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찰과 분석을 통해 행동이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발달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방법의 첫 단계입니다. Antecedent (선행자극), Behavior (행동), Consequence (결과)의 첫글자를 따서 명명한 ABC분석이 행동 중재의 기본 틀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 직전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상황이었는지 관찰하는 Antecedent (선행자극), 그에 따른 아이의 반응이나 행동인 Behavior (행동), 마지막으로 아이의 행동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Consequence (결과)를 기록하고 활용하는 것 등이 문제행동 중재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싶을때 (Attention) 2. 특정 물건을 얻거나 특정 활동을 하고 싶을 때 (Gaining access to sth) 3. 아이가 원하지 않는 액티비티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 (Escape/Avoid) 4. 특정 내부감각을 느끼고 싶거나 불편한 내부감각을 해소하고 싶을 때 (Sensory) 등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세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동에는 소리치르기, 팔 잡아당기기, 괴롭히기, 울기, 마음대로 물건 가져가기, 짜증내기, 공격하기, 자해하기, 도망가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원인인 "Sensory"에서 언급된 내부감각은 신체의 내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특수감각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의 경우 그 내부감각을 느끼고 싶거나 불편한 감각을 해소하고 싶을 때 손흔들기 (flapping hands), 머리를 때리는 자해행동, 본인 꼬집기 등의 문제행동을 보입니다. 비슷한 문제행동이라도 그 원인이 이 네가지 중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중재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문제행동 중재 방법입니다.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FCT):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 의사소통을 통해

언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실내 체육수업을 들던 중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뛰어가면, 그 행동의 원인이 앞서 얘기한 4가지 중 Escape/Avoid 라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의 앞에 서서 눈을 보며 "I need a break" 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가 "I need a break" 라고 말을 따라 했을 때 "Ok, 5 minute break" 라고 하고 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Response Blocking:** 아이의 진로방향을 가로막아 아이가 원하는 물건이나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든 예시처럼 아이가 체육수업 도중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아이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앞을 가로막아 block 하는 것입니다.

**Premack Principle:**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Grandma's Law," 혹은 "First/Then" 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Using a Timer:** 타이머를 사용하거나 시간을 정확히 재서 싫어하는 일이라도 그 시간동안은 아이가 지도에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를 10분 맞춰놓고 그 시간동안은 알파벳을 쓰도록 하고 10분이 지났다는 알람이 울리면 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Schedule:** 아이가 하루동안 해야하는 모든 활동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볼 수 있는 스케줄 표에 1. 인사하기 2. 이야기 나누기 활동 3. 미술시간 4. 정리정돈 을 나타내는 그림을 순서대로 붙여줍니다.

**Priming:**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시각적으로 혹은 말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스레칭을 먼저 5분하고 농구를 할거예요" 라고 말해줍니다.

**Token System:** "토큰"을 모아서 나중에 아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학문제 한 개에 토큰 1개를 주면 그것을 5개 모아서 레고 등 놀이를 하고 싶어 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향한 표정, 말하는 톤, 바디랭귀지 등에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칭찬 할 때는 "good job"이라고 계속해서 같은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세밀하게 "good coloring," "perfect match"와 같이 자세하게 해줍니다. 셋째, 아이의 능력이나 레벨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질문 형태로 해야 할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Do you want to clean up?" 처럼 아이들이 "no" 라고 답할 수 있는 옵션을 주지 않고 "Let's clean up." 과 같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다섯째 항상 아이의 기본과 주변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증제가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일 때 가족들,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본 교육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와 방법은 문제행동 증제를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입니다. 자폐나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의 강점과 약점에 따라 증제 계획을 세워야 하며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힐링타임을 마치고



무더웠던 지난 7월 4주 동안 엄마들을 위한 “힐링 타임”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힐링 타임은 누구의 엄마 또는 아내를 떠나 엄마들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Week 1

첫 번째 만남은 일상 생활에서 소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나눠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육아로 24시간 지쳐있는 엄마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마음속에서 꺼내어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숨죽이고 있는 자신만의 기쁨, 행복, 화, 슬픔, 그리고 불안감 등을 서로 나누어 보고, 자신만의 ‘감정색깔’을 골라서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여한 엄마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걸 표현하는 방법을 새로웠다”며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호응해 하셨습니다. 특히, 억누르고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지나치게 쌓인 감정이 아이에게 폭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Week 2

안정적으로 자라난 아이는 커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즉, 정서적 안정감은 자녀들의 학습능력 및 사회 적응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서 관리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감정 상태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엄마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엄마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 차리면서 조절까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정 조절 스킬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들은 평소 의식적인 호흡 (Mindful Breathing), 긍정적인 자기 대화 (Positive Self Talk), 모나리자 미소 (Half Smile), 자신에게 작은 상주기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하고 이를 통해 행복하고 긍정적인 정서로 아이가 성장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모두들 동참했습니다.

### Week 3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스트레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올바르게 배우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요인이나 정도가 각각입니다. 켈리 맥고니걸 박사 (Health Psycholo-



gist)가 8년 동안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따르면,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망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43%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는 선입견을 바꾼다면 본다면 스트레스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함께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일명 사랑의 호르몬, 포옹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옥시토신은 출산하는 산모에게 분비되어 고통을 진정시키고 포용력을 상승시켜 모성애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포용력과 공감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로 마음을 열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다면, 스트레스를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가한 엄마들은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스트레스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공감했습니다.

#### Week 4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의 중요성을 살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한숨도 커가는 어머니들에게 베품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을 비롯한 가족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소통해 질 수 있는 남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계의 기술'을 점검하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등 가트먼 박사의 '이혼하는 부부에게 독이 되는 네가지 습관'을 점검해 보고, 해독제가 되는 대처 습관인 부드럽게 대화 시작, 인정하기, 감사하기, 자기 위로 가능 증가법 등을 배웠습니다. 힐링 타임에 참여했던 한 참가자는 "남편의 부재 안에서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런 안전한 그룹 안에서, 외롭고 상한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진정한 힐링 타임이었다"는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감정코칭'의 저자 최석애 박사님은 "내 안에 행복 에너지가 가득할 때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고 이야기 합니다. 가정 안에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행복한 아이와 엄마가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4주간의 힐링타임을 양육이나 자녀교육을 잠시 미뤄놓고 잠시라도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게 위로 받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Parenting Seminar (9월28~ 11월 2일 6주간)

#### 엄마! 아빠! 내말 좀!! 들어줘

서로가 상처주고, 상처받으며, 서로가 힘이 드는 관계. 엄마의 잔소리에 아이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내려다보니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 가는 중에 혹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잠깐 멈추셔서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연계: 2016년 9월 28일~11월2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6주간)

어디서: 한미특수교육센터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 누구나

매주 부모 양육태도 점검, 효과적인 훈육방법,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높이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등록을 원하시면 센터로 연락주세요 562-926-2040



## LA Free Health Screening Fair



0~5세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는 자녀의 발달이 연령에 따라 적절하게 발달되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지연 또는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행동, 심리문제도 체크할 수 있어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위한 어린이 발달무료검사를 아래와 같이 주최합니다.

대상: 0세부터 5세 아동

장소: 월셔연합강리교회 (4350 Wilshire Bl, LA, CA 90010)

일시: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9a.m~ 3p.m

후원: Wismettac Foundation, Open Bank, 재외동포재단,  
왕글로벌넷

예약 및 문의: 562.926.2040 / info@KasecCA.org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 청각(Audiology) • 안과(Optomtry) • 치과(Dentistry)
- 정서발달(Social-emotional Development)
- 대근육/소근육 운동발달(Gross/Fine Motor development)
- 언어발달(Speech/Language Development)

\*이외의 자녀의 행동문제/심리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을 해주십시오.



## 한미특수교육 센터 프로그램 안내

### 특수음악 프로그램

노래와 악기들의 음악적 요소를 이용해 행동과 정서상 문제 해결을 돕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폐증, ADHD, 유치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놀이치료

정서가 불안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발산시킴으로써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고 아동의 잠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 KASEC 통합 농구교실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APE 교사와 농구 코치의 지도하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며, 농구의 기본기술을 배우고, 사회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ADHD Consulting

현재 공립학교에서 재직중인 Resource Specialist로부터 ADHD와 학습장애 가능성 여부와 진단과 학교문제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arenting Seminar/ Workshop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세미나와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와 부모님의 스트레스 조절방법, 효과적인 대화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 ASQ Developmental Screening

Wang Globalnet Fund의 지원으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발달선별검사를 해드립니다. 의사소통, 소근육, 대근육발달, 문제해결능력, 사회성 발달에 대해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 Children's Health Screening Fair (LA & OC)

Orange County와 Wismettac Foundation의 기금 지원으로 OC와 LA에서 발달선별검사 및 건강 박람회를 엽니다. 무료로 8개의 발달 영역에 대한 선별검사와 자폐증 및 발달장애와 관련된 상담 및 교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폐증/발달장애진단

발달선별검사서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센터 발달소아과 전문의에 의한 자폐증 또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자폐증 부모를 위한 Consulting도 함께 제공합니다.

## 후원해주신 분들

(2016년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 개인

김미원, 김신규, 김형준, 김효정, 나성에, 루디아 리, 류재란, 박수정, 박영숙, 박지경, 신동희, 양선주, 오윤경, 오지원, 육재민, 윤현경, 윤현숙, 이경미, 이은영, 이주희, 장인숙, 정옥점, 조동연, 조성대, 최동숙, Bella Shim, Choi Family, Connie Kan, Howard Kim, Jennifer Jung Kim, Joyce Wanyoung Yoon, Julie Lee, Kimberly Park, Lisa Yi, Rosa Chang, Stella Gee, Steve Do

### 교회 및 단체

뉴저지 초대교회, 미주서부교회, 하심교회, Angeles Contractor, Inc., GP Enterprise Corp., Kang Dream Foundation, Mias Fashion, Minsley Foundation, Nongshim Holdings, Wang Globalnet

\* 광고후원자 명단은 따로 적지 않고 광고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지난 9개월간 (Dec.2015 - August 2016)

총 524 Session의 치료 및 상담 서비스와 총 296 program session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한미특수교육센터 후원안내

### 1. 저희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은행에 저희 은행 및 계좌 information을 주시면 됩니다.

Bank Name: OPEN BANK

Routing Number : 122043958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Account Number: 04200218

### 2. 매달 자동 check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용하시는 은행의 Online Banking 에서 저희 센터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센터이름: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주소: 13353 Alondra Blvd. #110, Santa Fe Springs, CA 90670

### 3. 우편으로 Check를 보내주실 분들은 Payable to KASEC 로 쓰셔서 위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4. Smile.amazon.com

Amazon으로 쇼핑 하실 때, smile.amazon.com으로 들어가셔서 "pick your own charitable organization"에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를 선택하시면 총 구매 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KASEC으로 기부됩니다.

\* 저희 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ID 20-1635852)

## 진료 과목

- 일반내과(고혈압, 당뇨, 별)
- 소아과(예방주사, 신체검사)
- 부인과(PAP Smear, 유방암 검사)
- 외과, 피부 비뇨기과
- 종합 건강 진단과 진찰(Physicals)
- 직장사고, 교통사고
- 응급치료(Urgent Care)
- 알러지 검사 및 치료
- 각종 피검사
- X-Ray 검사, 초음파, 심전도
- 위, 장 내시경 및 조직검사
- 레이저 치료
- 물리치료



각종보험 / 메디케어

**진료 시간**  
 월-금: 8:30AM-6PM  
 수: 8:30AM-1:00PM

**562.402.7622**

11911 Artesia Blvd, Suite #101 Cerritos, CA 90702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김산근 가정 주치의  
John S. Kim, M.D.

미국 보건의문의



**TranStar Transportation, INC.**  
 Jay Shin, President

Truck Load, Less Than Truck Load and Transportation Service

- ♦ Truck Load to Northern California, UT, CO, AZ, NV, TX, etc
- ♦ LTL(Less Truck Load) Service in California
- ♦ 53 ft Trailer & 26 ft Bobtail Trucks available

Tel : (310) 534-0113      Mobile: (310) 800-8510  
 Fax: (310) 534-0116      E-mail: Transtar.inc@gmail.com  
 24328 S. Vermont Ave. suite #355 Harbor City, CA 90710

## JS Auto Tech Inc.

Auto Body & Repair

24 Hour 714.878.5945 Toll Free 888.636.5067

이오섭 Joseph Lee President

www.jsirvineautobody.com  
 jsautotech@hotmail.com

- FULLERTON BRANCH  
 158 N. Gilbert St. Fullerton, CA 92833  
 T. 714.870.0600 F. 714.870.0670
- H.Q OFFICE  
 10571 Acacia Ave. Garden Grove, CA 92840  
 T. 714.636.5067 F. 714.636.5068
- IRVINE BRANCH  
 260 E. Dyer Rd. Santa Ana, CA 92707  
 T. 714.557.0500 F. 714.557.0503



한국의 맛을 전하는  
**자연나라**

제이원은 자연나라의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Jayone.com

www.facebook.com/JayoneFoodsInc

“찾아가는 서비스”  
 24시간 무료 토잉

Since 1992

**STEVEN C. KIM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STEVEN C. KIM**  
ATTORNEY AT LAW

**The Wilshire Colonnade**  
3701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213) 365-7007**  
Fax **(213) 365-7001**  
stevencim@sbcglobal.net

**BETHEL**  
Dentistry

변영  
치과

**Seokwon Jang D.D.S**

Mon-Fri 9:30am-6:00pm  
Thur Close  
Sat 9:00am-1:00pm

원장 장석원  
Tel. 714. 869. 3043  
Fax. 714. 869. 3051

1821 W. Commonwealth Ave. #B, Fullerton, CA 92833

**Michelle Cho** REALTOR®

Cell: 714.388.2002  
realtor.michellecho@yahoo.com



Office 714-451-1700  
Fax 714-451-1720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유재욱**  
팀장  
HP TEAM 76

C: 213-700-0173  
E: jaeyoo929@gmail.com  
www.coway-usa.com

**coway**

COWAY USA INC.  
422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CA 90010

**Christina Kwon**  
Realtor®



Direct: (714) 504-6767  
Office: (714) 451-1700  
Fax: (714) 451-1720  
christinakwon@socialbest.com



BEST REALTY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Real Estate Broker/Realtor/Equal Housing Opportunity

*Solution for Tomorrow*



CEO David Chul S. Yang  
대표 양철승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 323 730.5050 F 323.731.1313 C 323.383.3723 david@laservisionworld.com

**Sean S. Lee, LUTCF**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CA Insurance License #OH62773



**Fraser Financial Group**  
353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252-6209  
Cell (562) 728-3808  
Fax (213) 252-6299  
seanlee@financialguide.com

**PARIS BAGUETTE**

*Cerritos Branch*

17416 Carmenita Rd.  
Cerritos, CA 90703  
Tel. 562.404.0440

# LAW OFFICE OF JENNIFER S. CHANG

JENNIFER S. CHANG, ESQ.

5900 WILSHIRE BOULEVAR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36

JENNIFER@JENCHANGLAW.COM  
TEL (323)931-5270  
FAX (213) 896-7050

WWW.EDUCATIONRIGHTSATTORNEY.COM  
WWW.JENCHANGLAW.COM

“ 제니퍼 장 변호사는 따듯함, 정직, 외향같은 학교 생활 문제부터 특수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시간까지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교육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www.wangfood.com



The Original Korean Brand

## Taste of Korea



wang

WANG GLOBALNET [www.wangfood.com](http://www.wangfood.com) VERNON, CA, 90058

## Executive Director

Rosa Chang (M. Ed. in Special Educ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Board Members

이사장: 양한나

실행이사: 한규삼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목사), 이경미 (AXA Financial Banker), Bella Shim, 조계원 (KIST, 신경과학부 교수), Christina Kwon (Realtor, Coldwell Banker), John Kim (세리토스 메디컬 센터 병원장), 강승현(Wang Globalnet 대표)

## Advisory Board Members

이시연 박사 (Cal State LA 사회복지학과 교수)  
 Susan Chung 박사 (Kaiser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송혜경 박사 (Cal State Fullerton, 의사소통장애학과 교수)  
 경우식 박사 (Cal State Fullerton,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광규 박사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박현선 박사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소아 발달전문인)  
 박규남 (Special Education Specialist, Lynwood School District)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

## Administrative Staff

### Planning & Public Relations Manager

Sam Yoon (B.A. in Church Music, Yonsei University)

### Program Coordinator

Jenny Kwon (B.A. in Child Development & Family Life Education, CSULB)

## Clinical Staff

### Therapy

Esther Lee (CCC-SLP, M.A. in Speech-Language Path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Heesoon Jeon (M.A. in Music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ichelle Oh (MFT Intern, M. A. in Clinical Psychology, Azusa Pacific University)  
 Yujin Park (MFT Intern, M.S. in Counseling Psychology,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Christina Cho (M.A. in Occupational Therapy, CSUDH)

### Adapted Physical Education Program

Kevin Ma (M.A. in Education, CSUDH, APE Credential in CSUN, 현 LAUSD APE Specialist)

### Clinical Supervisor

Kyunghee Kim (LMFT, M.S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Fuller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Disorder Evaluation

Hyun S. Park (M.D. in Developmental Pediatrics, 현 UCI Asst. Clinical Professor of Pediatrics)

### Special Education Consultation & ADHD Consultation

Hwa Byuck Lee (M.A. in Special Education, CSUF, 현재 Los Cerritos School RSP Teacher)

### Intern

Yoonjung Yang (B.S. in Psychology expected in 2017, UCSD)